

항만운송 관련 주요 질의·회신

#. 통선으로 방파제공사 바지선과 육지간의 연락 중계 가능 여부

| 질 의 요 지 | 회 신 내 용 |
|--|---|
| <p>(‘12. 7. 26, 춘천지검)</p> <p>○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중 본선의 범위에 항만 내에서 방파제공사를 위한 바지선도 포함되는지 여부</p> | <p>(‘12. 8. 3, 항만운영과-2498)</p> <p>○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에는 선박이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한 무역항만(노화도항 포함) 등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입출항 선박이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정박중인 상황에서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p> <p>○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항만내에서 방파제공사를 위해 사용되는 바지선의 경우에는 본선에 해당되지 않음</p> |